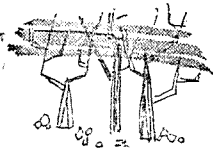


# 진강도력



## 100% 거짓말이 1%를 구한다

암(癌)은 본인에게 알릴 것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답은 아니요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암환자에게 암이라고 알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날 모부인이 S병원 내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부인은 위암증세가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밤잠을 자지 못하였다. 사흘밤낮을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유서를 썼다. 그런데 정밀 검사후 의사는 「실례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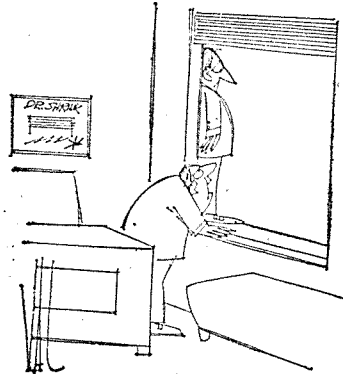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고민하는 부인을 보고 남편은 그렇게 의사를 믿지 못하겠으면 전문병원을 찾아가보라고 했다. 그부인은 J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한바 암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위하수(胃下垂)뿐이라 한것은 좋았는데 산처럼 많은 약

을 주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위통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의사는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다시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한번 암센터에 가보는것이 어떻겠느냐고 남편에게 말하였다. 암센터에서 렌토겐을 보면서 젊은 의사가 부주의하게도 「아 여기 고나」하고 한마디했다. 심하게 충격을 받은 부인은 다른 검사를 받지 않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

이들 세병원의 의사는 암 전문의였을지는 몰라도 암환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과 다를바 없었

해.  
의.  
만.  
화.



도대체 그러구 있으면 일이  
해결될것일지?

다. 의과대학에서 환자심리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암이라고 알릴 능력이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암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모르게 철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암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보면서도 살고 싶을 정도로 강한 등물은 아니다. 사형 선고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확실하다고 선고되었을 때와 의심스럽다고하는 경우는 환자 심리에 천리의 차이가 있다. 암이라고 일리는 것은 본인이 의사의 치료에 협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구명(救命)에 대한 최후의 기회마저 잃은 절망의 순간을 맞는 것이다.

예외중에 예외가 있다는 한가지 사실이 의사는 물론 환자 가족도 반드시 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 잘우는 사람은 오래 산다

눈물은 99%가 물인데 그밖에 0.1%의 단백질과 0.8%의 염분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소금물이다. 눈물은 결막을 보호하는 유효 역할을 하면서 세균을 용해하는 작용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양과의 휘발분이 코점막이나 눈을 자극하면 삼차 신경(三叉神經)의 가지인 눈물선 신경에 전달되어 눈물을 내게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눈의 결막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면 부교감 신경이 긴장되어 눈물이 흐르고 남자는 침이 많아져 사랑의 열도를 더 하게 된다. 사람이 슬픔에 잠겼을때 위장의 활동이나 위액분비가 크게 줄어드는 데 큰소리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거나면 위장활동이나 위액분비가 증가한다. 여자들이 큰소리로 울고난

뒤 밥을 많이 먹는 까닭이 여기있다. 주머니가 약한 사람은 여자를 울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남자들도 국민 학교 1,2학년때까지는 여자들처럼 잘 울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너는 남자가 아니냐, 형이 왜 우느냐하면서 혼란을 거듭하는데 울수도 없게 되었다. 중년이 지나 눈물을 잘 흘리면 동맥경화의 증조라고 위험을 당한다.

이처럼 울수도 없게된 남자는 안전판이 빠진 보이라처럼 슬픔을 안으로吞아넣어 생명력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여자처럼 큰소리로 울게하지 않으면 여자들보다 5년이나 작은 수명의 차이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우는 사람이여 장수만세로다.

• 기생충 박멸 표어  
회충 0%  
10년 운동